

SEOUL ECONOMIC MONITORING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2018년 6월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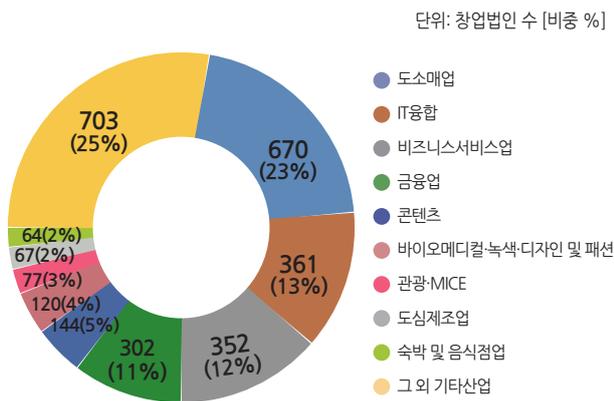


산업별 창업 동향

I 산업별 창업현황

- 2018년 6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860개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670개, IT융합 361개, 비즈니스서비스업 352개, 금융업 302개, 콘텐츠 144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120개, 관광·MICE 77개, 도심제조업 67개, 숙박 및 음식점업 64개, 그 외 기타산업 703개가 창업
-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215개), 제조업(167개), 건설업(104개) 등이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 차지

[그림 1] 2018년 6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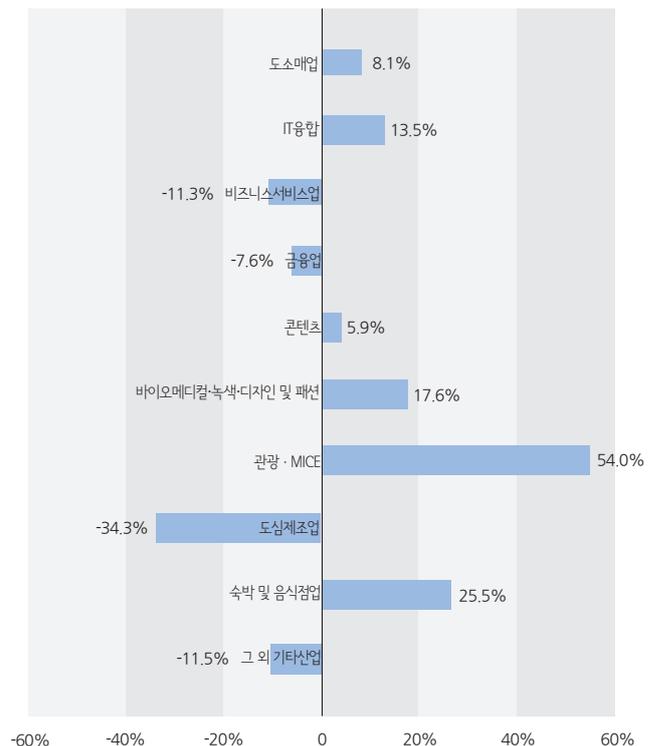
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7.2로 (전년동월에 비해) 1.7% 감소
- 산업별로 봤을 때 관광·MICE, 숙박 및 음식점업,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의 세 개 산업은 5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 그러나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과 금융업이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들어 감소로 전환되며 전체 지수를 감소로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
- 관광·MICE(54.0%)가 급증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25.5%),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17.6%), IT융합(13.5%), 도소매업(8.1%), 콘텐츠(5.9%)도 호조
- 반면 도심제조업(-34.3%), 그 외 기타산업(-11.5%), 비즈

니스서비스업(-11.3%), 금융업(-7.6%)은 감소

- 관광·MICE 산업은 국내 여행사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 국내 여행사업에서 법인 창업이 대폭 증가
-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등 모든 구성 업종이 감소
- 금융업은 그 외 기타 금융업이 전년동월에 비해 급감하면서 감소로 반전
 - 그 외 기타 금융업은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을 포함
- 도심제조업은 2~5월 감소세가 지속되다 6월 들어 가장 큰 감소율(-34.3%)을 기록
 - 서울시 도심제조업은 의류봉제제조업, 기계, 인쇄, 귀금속으로 구성
 - 의류봉제제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작은 비중 차지
- 그 외 기타산업은 4~5월 증가하다가 6월 들어 감소(-11.5%)로 돌아섬
 - 건설업(-22%)과 제조업(-21%)이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1] 2018년 6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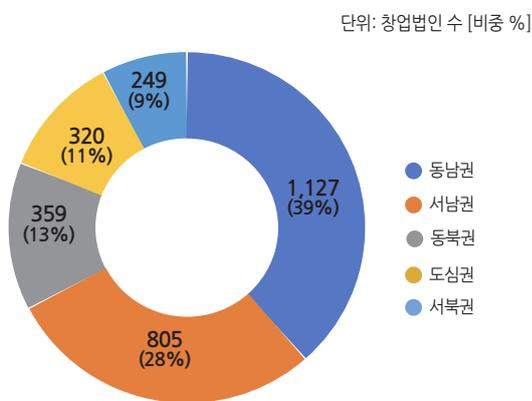
지역별 창업 동향

1) 5대 권역별

I 5대 권역별 창업현황

- 권역별 법인 창업은 동남권이 1,12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남권 805개, 동북권 359개, 도심권 320개, 서북권 249개 순으로 활발

[그림 2] 2018년 6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비중)



- 금융업은 서남권에서, 도심제조업은 동북권에서 법인 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그 외의 모든 산업들은 동남권 창업이 가장 많음
- IT융합(77%)은 한강 이남 지역(동남권, 서남권)에서의 법인 창업 비중이 가장 크며 한강 이북 지역 창업은 작은 비중 차지
- 금융업(74%)과 비즈니스서비스업(70%)도 한강 이남 지역에서의 법인 창업 비중이 매우 높음
 - 금융업의 법인 창업은 서남권(53%)에서 절반 이상 이루어지고 동남권(22%)과 도심권(21%)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음
 -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동남권(49%)에서 절반 정도 창업되며 서남권(21%)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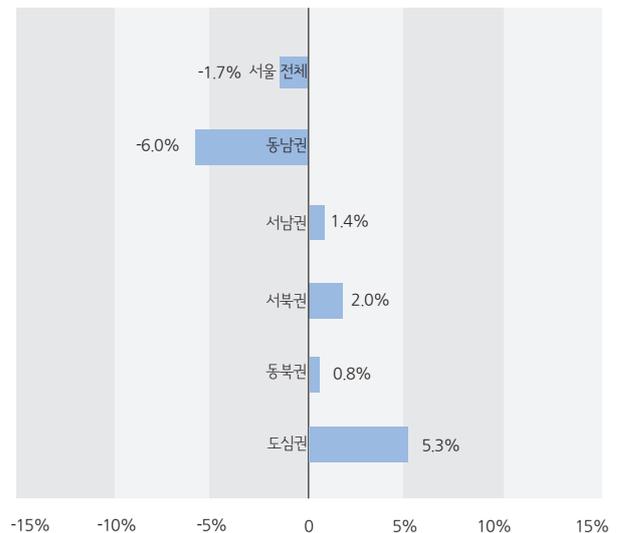
I 권역별 증감률

- 권역별로는 도심권의 법인 창업이 활발하고 다른 권역들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동남권이 크게 감소하여 서울 전체 지수를 감소로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남
- 법인 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강 이북 지역은 도

심권(5.3%)이 4~5월에 이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서북권(2.0%), 동북권(0.8%)도 소폭 증가

- 도심권은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관광·MICE, 콘텐츠 등에서 법인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
- 도심권 자치구 중 특히 종로구의 법인 창업이 전년 동월에 비해 약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종로구에서는 도소매업, 금융업,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창업이 급증
- 반면 서울 법인 창업에서 약 40%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권(-6.0%)은 감소하여 서울 전체 지수를 감소로 끌어내리는데 기여
 - 동남권은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22.1%), 금융업(-16.7%)의 감소를 비롯하여 도심제조업(-37.0%),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17.5%)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창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지난 달 증가에서 6월 들어 감소로 역전
 - 동남구 자치구 중에서는 소폭 증가한 서초구(3.3%)를 제외하고 강동구(-11.1%), 송파구(-9.2%), 강남구(-8.5%) 법인 창업이 모두 부진

[표 2] 2018년 6월 5대 권역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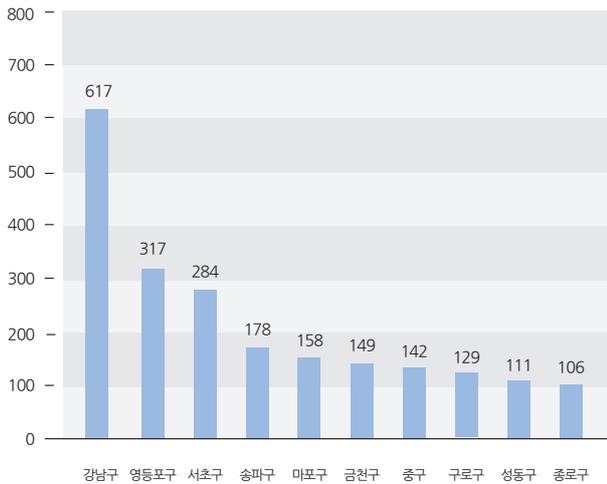


2) 자치구별

I 자치구별 창업현황

- 자치구별 법인 창업은 강남구가 617개로 가장 많고, 그 외 영등포구 317개, 서초구 284개, 송파구 178개, 마포구 158개, 금천구 149개 순

[표 3] 2018년 6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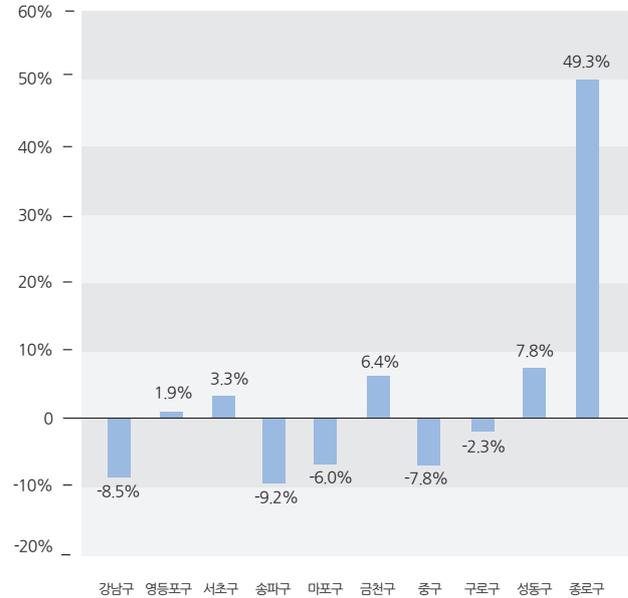
-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들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에서 영등포구, 중구,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도소매업 창업이 가장 많음
 - 특히 성동구(32%)는 도소매업 비중이 매우 높음
- 영등포구와 중구에서는 금융업이 가장 많이 창업되었고, 구로구에서는 IT융합이 가장 많이 창업
- 강남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업(18%)의 창업이 도소매업(19%)과 견줄 정도로 매우 활발
- 서초구와 마포구에서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과 IT융합 산업이 많이 창업

I 자치구별 증감률

- 종량구(116.7%), 종로구(49.3%), 강북구(38.9%), 동작구(28.1%) 등은 법인 창업이 (전년동월 대비) 급증한 반면, 성북구(-41.3%), 양천구(-38.6%), 동대문구(-22.2%) 등은 급감
-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49.3%)의 창업이 급증하고 성동구(7.8%), 금천구(6.4%) 등도 (전

년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송파구(-9.2%), 강남구(-8.5%), 중구(-7.8%)는 감소

[표 4] 2018년 6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인포그래픽 : 서울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규모 추정

추정방법

법인 창업에 따른 산업별·권역별 일자리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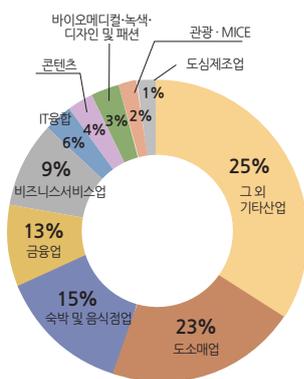
$$\text{산업·권역별 창업법인 수[보정]} \times \text{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보정]}$$

(※ 신설법인 수는 (주)한국기업데이터 2018년 월별자료를 보정한 수치, 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수는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에서 보정한 수치)

2018년 6월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는 총 13,71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3% 감소 추정

5월의 증가세에서 6월 들어 감소세로 반전

산업별 일자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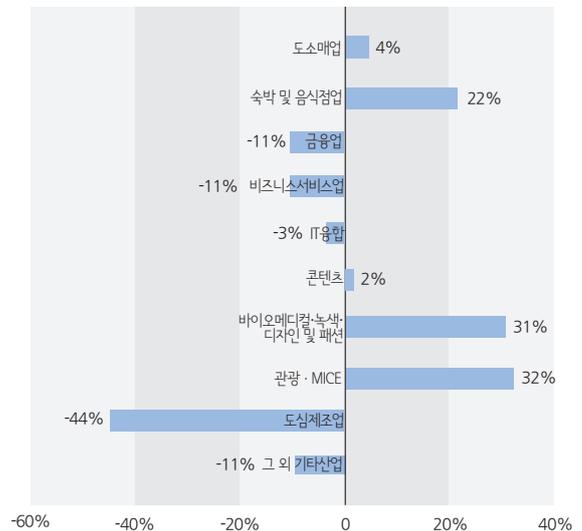
산업별 일자리는 도소매업(3,101명)이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2,089명), 금융업(1,766명), 비즈니스서비스업(1,210명)이 뒤를 이음

산업별 일자리는 관광·MICE(32%)와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31%)이 급증했고 도소매업(4%), 콘텐츠(2%) 산업의 일자리는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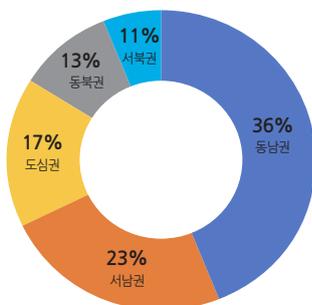
반면 올해 2월부터 일자리 수가 급감한 도심제조업(-44%)은 6월 들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그 외 기타산업(-11%), 비즈니스서비스업(-11%), 금융업(-11%)의 일자리도 감소

일자리 증감률

(전년동월 대비)



권역별 일자리 비중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수로 보았을 때 권역별 일자리는 동남권(4,914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남권(3,200명), 도심권(2,356명), 동북권(1,730명), 서북권(1,510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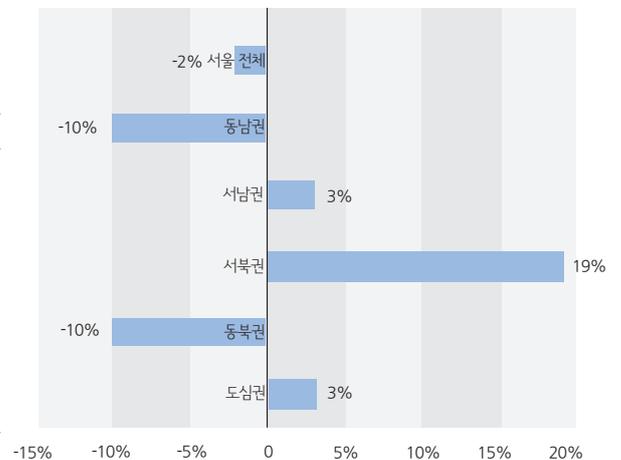
5대 권역별 일자리 수는 서북권(19%)이 약진했고 서남권(3%)과 도심권(3%)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동남권(-10%)과 동북권(-10%)은 하락

일자리 수가 급증(19%)한 서북권은 숙박 및 음식점업,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비즈니스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

일자리 수가 감소한 동남권(-10%)과 동북권(-10%)은 모두 도심제조업이 급감 이외에도 동남권은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서, 동북권은 금융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

일자리 증감률

(전년동월 대비)



개요

I 창업법인 데이터

- 데이터 : (주)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 자료
- 산업분류: 비즈니스서비스업, IT융합, 금융업, 콘텐츠, 관광·MICE,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도심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 외 기타산업의 총 10개 산업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5대 권역(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종로, 중구, 용산

- 법인 창업동향은 (주)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 자료를 이용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 (주)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수(국가승인통계)는 차이가 있음
 - 이 연구자료의 창업법인 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수보다 2016년에는 311개가 많고, 2017년에는 346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근소한 차이가 있음

연도	기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6	중소벤처기업부	2,571	2,264	2,876	2,766	2,559	2,843	2,660	2,664	2,301	2,659	2,587	2,748	31,498
	한국기업데이터	2,596	2,271	2,866	2,766	2,607	2,935	2,703	2,670	2,316	2,659	2,604	2,816	31,809
2017	중소벤처기업부	2,514	2,570	2,859	2,544	2,425	2,859	2,543	2,597	2,632	1,920	2,791	2,646	30,900
	한국기업데이터	2,570	2,613	2,923	2,615	2,482	2,897	2,589	2,592	2,676	1,975	2,838	2,476	31,246

I 서울 법인창업지수

- 서울시 소재 법인 창업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수로 산업별 창업법인 수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매월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창업법인 수의 변화를 측정
- 데이터 : (주)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
- 가중치 : 산업별 창업법인 수 대비 전체 창업법인 수(2015년, (주)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산업분류 및 공간적 범위: 창업법인 데이터와 동일
- 기여도 : $\text{종합지수증감률} = \sum_i \text{기여도}_i$, $\text{기여도}_i = (\Delta \text{하위지수}_i / \Delta \text{종합지수}) \times \text{종합지수증감률}$, i 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서울 법인 창업지수의 한계]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서울의 창업 증감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사업체의 창업만 다루고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체 창업은 다루지 못하고 있어 개인사업체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창업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2016년 창업한 서울 내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의 창업이 78%, 법인사업체의 창업은 21%로 법인 창업만으로는 전체 창업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 다만 창업 법인의 종사자 수는 전체 창업 사업체 종사자의 38%에 달하고 있어 법인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개인사업체보다 뛰어난. 또한, 기존 법인을 포함한 서울시 법인사업체의 종사자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67% 규모임을 감안하면 법인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 중요하며, 법인 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전체 고용의 향배를 알려주는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음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계절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계열 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감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러나 명절이 있는 달은 설·추석 명절의 월간 이동에 의한 효과가 원계열 지수의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원계열 지수와 함께 전체 지수에 대한 계절조정치도 참고지표로 제공

I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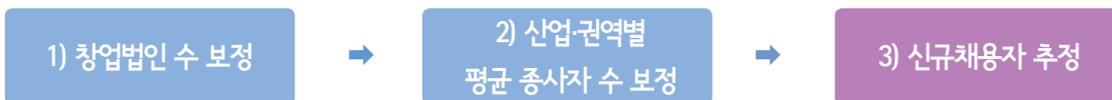
-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매월 창업된 법인에 의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임
- 추정 방법

법인 창업에 따른 산업별·권역별 일자리 창출 =

$$\text{산업·권역별 창업법인 수[보정]} \times \text{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보정]}$$

(※ 창업법인 수는 (주)한국기업데이터 2018년 월별자료를 보정한 수치, 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는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에서 보정한 수치)

-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정은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를 보정한 수치와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에서 보정한 창업법인 평균 종사자 수를 곱하여 사용
-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은 다음과 같은 2단계의 보정과정을 거침



1) 1단계: 창업법인 수 보정

- (주)한국기업데이터 2018년 월별자료 사용. 그러나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사업체조사의 창업법인 수보다 과대추정됨
 - 한국기업데이터는 창업된 법인이 당해연도에 폐업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포함
 - 과대 추정 우려가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를 보정하는 방법
 - 산업별·권역별 사업체조사의 법인 사업체 수 대비 한국기업데이터의 법인 수 비율을 최근 2개년에 대해 연도별로 산출
 - 산업별·권역별 창업법인 수(보정) = 최근 2개년 법인 수 비율의 이동평균 값 ×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
- ※ (주)한국기업데이터와 사업체조사 자료는 공표시점에서 2년의 시차가 존재

2) 2단계: 산업·권역별 평균 종사자 수 보정

- 최근 2개년 서울사업체조사 자료 사용
- 채용 규모가 큰 소수의 창업 법인에 의한 과대추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를 제외
- 각 연도의 산업별·권역별 평균종사자 수를 구한 후 2개년 이동평균을 산출하여 사용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정에서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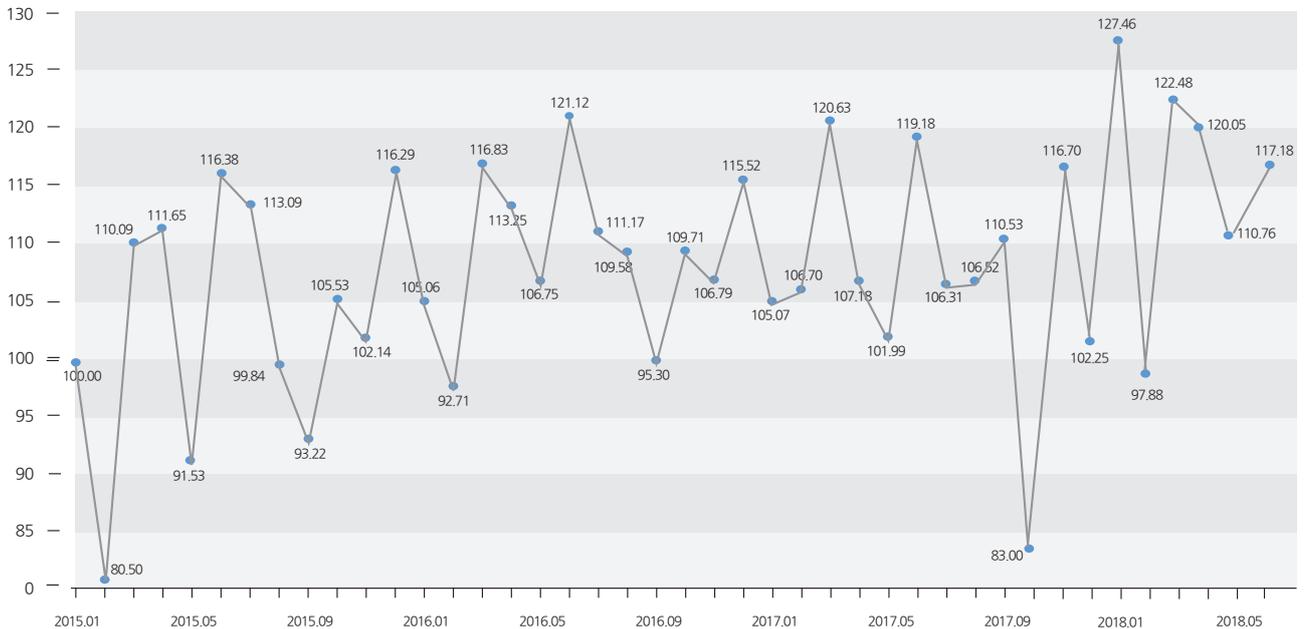
- 서울 소재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수를 집계한 통계청 및 서울고용노동청의 고용동향과 다를 수 있음

통계표

I 서울 창업법인 수: 산업별·권역별 분포

산업	권역					산업별 합계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도소매업	241	183	57	126	63	670
비즈니스서비스업	173	73	28	41	37	352
금융업	65	159	11	5	62	302
IT융합	159	120	31	32	19	361
콘텐츠	60	29	22	10	23	144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패션	47	29	11	22	11	120
도심제조업	17	13	4	21	12	67
관광·MICE	34	13	5	6	19	77
숙박 및 음식점업	25	16	7	5	11	64
그 외 기타산업	306	170	73	91	63	703
권역별 합계	1,127	805	249	359	320	2,860

I 서울 법인창업지수 추이(2015년 1월 ~ 현재)





I 산업별 기여도

연월	2018.01	2018.02	2018.03	2018.04	2018.05	2018.06
서울 법인창업지수	21.3%	-8.3%	1.5%	12.0%	8.6%	-1.7%
도소매업	5.4%	-1.8%	0.1%	4.6%	2.6%	1.8%
비즈니스서비스업	3.1%	-0.2%	1.5%	1.4%	0.7%	-1.5%
금융업	0.7%	-0.6%	0.9%	1.1%	0.3%	-1.1%
IT융합	2.5%	0.5%	1.9%	1.4%	2.1%	1.3%
콘텐츠	0.6%	-0.8%	-0.2%	0.5%	0.4%	0.2%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1.7%	0.4%	0.2%	0.7%	0.9%	0.5%
도심제조업	0.5%	-0.6%	-0.6%	-0.4%	-0.8%	-1.1%
관광·MICE	-0.2%	-1.4%	-0.1%	-0.4%	1.1%	0.9%
숙박 및 음식점업	0.2%	-0.8%	-0.7%	-0.5%	0.9%	0.5%
그 외 기타산업	6.9%	-3.1%	-1.5%	3.6%	0.4%	-3.1%

□ 기여도 : 하위구성산업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도소매업 등 10개 산업의 변동이 서울 법인창업지수의 증감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10개 산업의 기여도 합은 서울 법인창업지수 전년동월비 증감률과 같음

I 하위 구성산업 산업분류

하위 구성산업	산업분류(산업분류코드)
비즈니스 서비스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농학 연구개발업(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9), 변호사업(71101), 변리사업(71102), 법무사업(71103),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공인회계사업(71201), 세무사업(71202),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71209), 광고 대행업(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 광고매체 판매업(71392), 광고물 작성업(71393), 그외 기타 광고업(71399),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00), 비금융 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업(71531), 공공관계 서비스업(7153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7211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9), 측량업(72921), 제도업(72922), 지질조사 및 탐사업(72923), 지도제작업(72924),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73301),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 사진 처리업(73303), 매니저업(73901),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건물 추출업(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8570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IT융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1),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9),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26222), 전자관 제조업(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26293), 전자카드 제조업(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전자접속카드 제조업(26296),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컴퓨터 제조업(26310), 기억장치 제조업(26321),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26322),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26323),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26329),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방송장비 제조업(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 텔레비전 제조업(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9),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180),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자료 처리업(6311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하위 구성산업	산업분류(산업분류코드)
금융업	<p>중앙은행(64110), 국내은행(64121), 외국은행(64122), 신용조합(64131), 상호저축은행(64132), 기타 저축기관(64139), 자산운용회사(64201), 기타 투자기관(64209), 금융리스업(64911), 개발금융기관(64912),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64913),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64919), 기금 운영업(64991), 금융지주회사(64992),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64999), 생명 보험업(65110), 손해 보험업(65121), 보증 보험업(65122), 건강 보험업(65131),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65139), 재 보험업(65200), 개인 공제업(65301), 사업 공제업(65302), 연금업(65303), 금융시장 관리업(66110), 증권 중개업(66121), 선물 중개업(66122),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66191), 투자 자문업(66192),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0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00)</p>
콘텐츠	<p>기록매체 복제업(18200),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46461),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4762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58111), 만화 출판업(58112), 기타 서적 출판업(58119),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58123),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90),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녹음시설 운영업(59202), 라디오 방송업(60100), 지상파 방송업(60210),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뉴스 제공업(63910)</p>
관광· MICE	<p>호텔업(55111), 휴양콘도 운영업(55113),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 국내 여행사업(75212),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90211), 독서실 운영업(90212), 박물관 운영업(90221),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2),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자연공원 운영업(90232),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낚시장 운영업(91231),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9),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91292)</p>
바이오· 메디컬· 녹색· 디자인 및 패션	<p>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석탄 광업(051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05200), 우라늄 및 토륨 광업(062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0801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90),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16212),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19101),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19102), 원유 정제처리업(19210),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1922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20303), 타이어 재생업(22112),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일차전지 제조업(28201), 축전지 제조업(28202), 전구 및 램프 제조업(28410),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3),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29150), 기체 여과기 제조업(29174), 액체 여과기 제조업(29175), 원자력 발전업(35111),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송전 및 배전업(351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3811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3812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3813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0), 건설 폐기물 처리업(38230), 금속원료 재생업(38301),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09),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41223),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2),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21300),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3),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종합 병원(86101), 일반 병원(86102), 치과 병원(86103), 한방 병원(86104)</p>



하위 구성산업	산업분류(산업분류코드)
<p>도심 제조업</p>	<p>경 인쇄업(18111), 스크린 인쇄업(18112), 기타 인쇄업(18119), 제판 및 조판업(18121), 제책업(18122), 기타 인쇄관련 산업(18129), 도금업(25922),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3311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33120),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4649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편조제품 제조업(13320), 남자용 정장 제조업(14111), 여자용 정장 제조업(141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14120), 한복 제조업(14130),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1419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14192), 가족의복 제조업(14193), 유아용 의복 제조업(14194),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14199), 원모피 가공업(14201), 천연모피제품 제조업(14202),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14203), 편조의복 제조업(14300),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14411),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9), 모자 제조업(14491),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14499),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15110),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15121),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1512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15190), 구두류 제조업(15211), 기타 신발 제조업(15219), 신발부분품 제조업(15220), 내연기관 제조업(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29119), 유압기기 제조업(29120), 액체 펌프 제조업(29131), 기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29133),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29142),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29161), 승강기 제조업(29162), 컨베이어장치 제조업(29163),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29171), 공기조화장치 제조업(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2917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29176), 일반저울 제조업(29191),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29192),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29193),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29194), 동력식 수자공구 제조업(29195),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29210),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2922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2922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29223),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29230),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29250),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2), 산업용 로봇 제조업(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p>
<p>도소매업</p>	<p>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기준을 따름</p>
<p>숙박 및 음식점업</p>	<p>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기준을 따름</p>
<p>그 외 기타산업</p>	<p>상기 9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그 외 기타산업'으로 분류</p>